

불교대학을 찾아서

⑧ 구룡사 원주불교대학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김옥란(37) 보살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바빠진다. 다음날 오후 3시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서 열리는 '원주불교대학'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다. 강의 시간은 고작 100분이지만 등하교 시간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 태백에서 원주까지 기차, 다시 원주역에서 구룡사까지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

하지만 김 보살은 "평소에 만나기 힘든 큰 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의 감로법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때면 비록 길 길은 멀지만 마음속에 큰 가르침을 한가득 싣고 가는 느낌이 들어 뿌듯하다"고 즐거워 한다.

문을 연지 2년 밖에 안된 구룡사주지 원행 원주 불교대학에는 김 보살처럼 태백지역을 비롯해 강릉, 춘천, 동해 등 강원도 내는 물론 심지어 청주에서까지 불자들이 몰려든다.

이유는 우수한 강사진 때문이다. 정락스님(수원 용주사 주지)을 비롯해 각성스님(부산 화엄사 주지), 정병조 교수(동국대,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최봉수 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 김용철 교수(중앙승가대), 심백강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이장훈 총장(한라대)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불교계 선지식들이다. 교육과정도 '불교사', '경전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문

화', '불교와 복지', '경전의 이해', '금강경강좌' 등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경전공부를 병행하도록 짜여져 있다. 특히 개학 후 3개월 동안은 본교육이 끝난 뒤 두시간동안 포교원에서 펴낸 '기본신도교육'을 교재로 특강을 한다. 또 무더위에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8월에는 성지순례와 봉사활동, 쉼야정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교육내용이 충실하다보니 지난해 1기 졸업생 33명중 5명이 포교사고시에 합격했으며, 올해 5월 시작된 2기 모집 때는 104명이나 등록할

강원도 불교인재양성 목표 개교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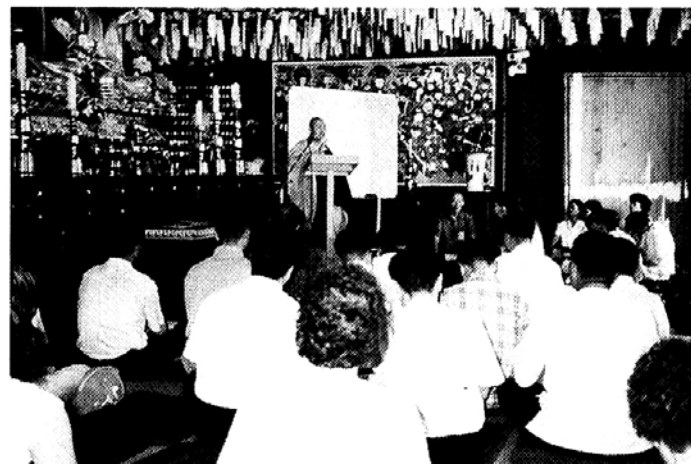
정락스님·정병조 교수 등 우수 강사진

8월중 성지순례·봉사활동·철야정진

정도로 반응이 좋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 덕분일까. 개교한지 얼마 안됐지만 원주 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정식인가도 받았다.

원주불교대학이 이처럼 강원불교의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학장인 구룡사 주지 원행스님과 부학장인 최상순 법사의 역할이 컸다.

2000년 12월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취임한 원행 스님은 93년 대전 자광사 주지 시절부터 불교대학 설립의 명 파트너(가)로 함께 일해온 최 법사를 불러들여 평소 소신인 교육불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정락스님(화성 용주사 주지)이 구룡사대웅전에서 '포교방법론'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최상순 법사는 동해 삼화사 불교대학 등 원행스님의 부임지를 따라 다니며 불교대학 건립에 큰 공헌을 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대학의 활성화는 포교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불교가 살아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철저한 교육프로그램과 철저한 관리, 유능한 강사진 섭외 등을 통해 원주지역 더 나아가서는 강원불교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펼쳐보였다.

원주=김주일 기자

강의·학사관리 등 학교일 도맡아

1기생 최상순 부학장



"내일있는 불교대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모든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1기과정에서 등록하고 동기생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불교대학을 관리합니다." 최상순 원주불교대학 부학장은 집이 대전이지만 구룡사에 기거하며 매주 토요일이면 불교대학생들의 심부름꾼(가) 되어 강의준비에서부터 출석관리, 및 퇴교 등 갖가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원주불교대학의 맡겨진 역할을 하고 있다.

서 쌍무지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경기도 포천 땅에서 본 것이 전부입니다.

카트만두의 장마는 제가 자라면 어린 시절의 포천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진중일 장대같은 비가 쏟아져 내릴 때 침묵이 내리치고 다리가 끊어지고 초가지집이 떠내려가는 동안 저는 땀방울이 맺혀 있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찬 낙수를 줄기가 처마 밑의 흰모래를 파내며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양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잠에서 깬 어느 날, 거짓말처럼 파랗게 갠 하늘에 피난민 이불보따리 같은 구름이 느릿느릿 청계산을 넘어가더니 거기 쌍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춘하추동 사계제 우기와 건기를 합친 네팔의 여섯 계절 중에서 하필이면 이 우기를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쌍무지개의 추억 때문일 것입니다.

카트만두는 이제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섰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해발 고도가 1,600미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사흘만 해가 안 나면 오슬오슬 한기가 느껴집니다. 어제 밤에는 두꺼운 담요를 꺼내 덮고 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서면 네팔 전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어제 밤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물에 잠겼으며 최소한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는 카트만두 외곽에서 더 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이런 비가 자주 내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겨울에 삼한사온이 있듯이 이 계절의 네팔에서도 삼일 내리 비가 오면 그 후 사나흘 동안은 하루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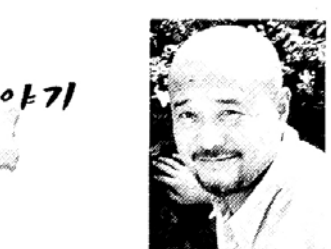
<7> 장마

어린시절의 포천 연상 카트만두 장마

비 갠후 얼굴내민 설산·쌍무지개 장관

한 두 차례 소나기가 퍼붓다가 금방 푸른 하늘이 나오고 따가운 햇살이 쏟아집니다.

소나기가 오다 그치고 햇살이 난 카트만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먹구름이 멀찍이 물러선 푸른 하늘엔 꽃구름이 흘러 다니고 주택가 골목에는 아름



다운 꽃들이 담 밖으로 고개를 내밀니다. 드물게는 북쪽 하늘가에 설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이 계절에는 사나흘에 한번 씩 무지개가 서기도 했는데 한 번은 선명한 쌍무지개를 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인도 북부의 락담 지방에



원주=김주일 기자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목탑방서 꿈 일구는 소녀가장

"초등학교 교사 될래요"

목탑방. 후덥지근하다. 한낮의 복사열이 오후 늦게까지 극성을 띤다. 지난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땀바닥과 싸웠다. 전기장판. 어머니같은 존재였다. 여태껏 땀바닥을 궁색 맞고 있었지만, 치워야 할 정도로 불편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 계절은 여름이지만, 여전히 비좁은 방안은 한겨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영이(18·서울 청랑고3)와 동생 성준이(15·서울 성일중3) 남매가 1년째 살고 있는 동대문구 회기동 목탑방. 그 방문을 쳐봐, 환한 미소로 하영이가 맞이한다. 얼굴에 잔뜩 그늘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은

나려고 하지 않고요." 불행의 화근. 그것은 아빠의 사고였다.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 강원명 씨는 정신을 놓게 됐다.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술로 보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주변'은 심해졌다. 매트는 얇다. 어린 아들 남매에게는 감당 못할 아픔이었다. 결국 지난해 아버지는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일까? 하영이는 아버지 애기 끝에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요새 들어 부쩍 고민이 많아진 하영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속한 부모님만 원망할 수 없어, 공부에만

낙상 아버지 정신병원·어머니 가출

역경속에서도 곳곳...학업 강한집념



◇대입수능 시험 11월 6일. 소녀가장 하영이의 꿈이 착실하게 이루어진다.

근히 미안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참! 동생 성준이가 없다. 축구에 정신이 팔려 아직 집에 안 왔으며 하영이가 머리를 굴적거리며 둘러댄다. 하지만 찾아가기 전에 걸었던 핸드폰에서 들려왔던 말. '누가 온다는데. 그래? 누나'. 성준이는 이미 자리를 피해 있었다. 어색한 웃음.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연을 묻자, 이내 하영이는 주먹이 든다.

"사실 7년 전만 해도 아빠, 엄마, 동생과 함께 '오붓하게' 잘 살았어요.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부동산업을 하던 아빠. 전 '꿈 많은 소녀'였어요. 하지만 아빠가 술에 취해 계단을 구르시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동생도 웬만해서 낯선 사람을 만

매달렸던 하영이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며 칭찬을 해줬지만, 하영이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빨리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위해 악착같이 책을 읽어 들었다. 졸업반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도 좋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고대 진학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한달 보조금 30만원으로 뼈대하게 사는 형편에 한숨만 길어진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다방면으로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적성이 딱 맞아요. 무엇보다도, 빨리 제가 자리를 잡아야만 동생 교육문제도 척척할 수도 있고요." 하영이가 인터뷰 도중에 연신 시계를 쳐다본다. 집 근처 공부방에갈 시간이 된 것이다. 하영이는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 공부방으로 향하는 하영이의 뒷모습. 학업에 대한 강한 집념만큼이나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당당함이 엿보인다.

주소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53
후원계좌 : 주택은행 420802-01-009383(예금주 강하영)

김철우 기자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 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꼭 확인하십시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004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양성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기 자극을 촉진하여 여성을 피로에서 해방시켜 준다. 피로가 없어지면 혈액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구역질도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한방약을 배꼽(신권혈)에 찌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루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썹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넘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